

세상을... 삶을 바꿀... 친환경 디자인이 온다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5월 5일~29일 전남농업기술원

올해 국제농업박람회(10.15~11.01)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남도가 내년에는 '친환경 디자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 2016년 5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25일간 나주에 자리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의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라는 의미다. '생명의 땅' 전남이 가진 친환경 소재와 최첨단 신기술을 디자인과 융합함으로써 지역 내 친환경 자원을 산업화하는 성격이다.

전남 농수축임산 자원·기술에 디자인적 가치 창출

'공존 지혜의 장' 등 3개 권역 7개관... "전 세대 즐길 것"

◇전남의 친환경 자원과 신기술 그리고 디자인의 만남=삶의 질, 건강, 힐링 등이 증시되면서 '친환경'은 식품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 속에서 천연소재와 재활용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이 단기간의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며, 원재료로부터 가공·판매·유통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 이를 규정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친환경과 디자인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실상 첫 시도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친환경의 본거지로, 다양한 농수축임산자원이 산재해 있어 이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지 이번 박람회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디자인'이 자원과 노동, 생산방법, 이동거리, 제품의 수명, 순환 가능성, 기업 이미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등과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가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지난 2014년 7월 조직위 창립, 임장권 판매 시작=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주제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다. 국비 27억원, 도비 65억원 등 92억원이 투입되며, 내국인 83만6000명, 외국인 4만4000명 등 모두 88만명이 찾을 것으로 조직위는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주제만큼 국내외 학계, 업계 등의 관심이 높고, 미래세대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둘러볼 수 있는 전시물을 갖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14년 1월 제정·시행된 '재단법인 전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을 제정하고, 7월 24일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창립했다.

이후 올 들어 지난 3월 1일 박람회 총감독에 고석만 전 여수세계박람회 총감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뒤 대내외 홍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원을 이끌어내 다국어 홍보자료 번역 지원,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약속받았다.

조직위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디자인코리아 2015'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친환경과 디자인이 결합된 박람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국내외 친환경디자인 기업들의 박람회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개최지인 나주에서 포럼을 열고, 이날 들어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경복궁역과 해오름 전시관에서 '남도갤러리'를 세상에 바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노선도' 작품을 전시하며 수도권 홍보에 나섰다. 이 작품은 박람회의 전시 방향을 지하철역 노선도로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16일부터 임장권 인터넷 예매에 들어갔다. 가격은 현장 판매 기준 성인 1만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이지만, 인터넷(www.ticketlink.co.kr)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구입하면 30% 할인된다.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에 입장권 소지자에게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연계상품도 추진하고 있다.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온라인 최일선에서 박람회를 홍보할 대학(원)생 서포터즈 25명도 모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해외 대학(원) 4년제·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모집 요강은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누리집(www.ecodex.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이메일(ecodex2016@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의 친환경과 디자인의 융합·창조 실현"=박람회장은 3권역 9개 전시공간으로 꾸며진다. '인류 질주의 장', '인간과 환경 공존을 위한 지혜의 장', '새로운 삶 시자의 장' 등 3개 권역에 제1관 천연염색관, 제2관 자연자원관, 제3관 콘텐츠산업관, 제4관 미래관, 제5관 디자인스쿨, 제6관 라이프투게터, 제7관 남도관 등 7개의 전시관이 들어서고 그 외에 도입관, 브릿지, 마켓 등이 자리잡는다.

천연염색관에서는 빛, 색, 스토리, 영상 등이 결합된 극적 장치가 연출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천연염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관에서는 전남의 숲과 섬, 에너지로 변신하는 자연자원 등을 엿볼 수 있다. 콘텐츠산업관은 문화콘텐츠로 꾸미고 자연요소로 지닌 캐릭터디자인이 산업화되는 과정을, 미래관은 디자인과 친환경, 신소재 및 나노 바이오 등 미래산업이 만나 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각각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디자인스쿨은 어린이놀이터와 디자인 놀이공간, 라이프투게터에서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친환경디자인 제품 전시공간, 남도관은 친환경 디자인의 메카로서의 전남의 미래 공간으로 꾸민다. 박람회 기간 공간체험실, 놀이창작실, 체험학습실로 구성된 디자인 스쿨과 스페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식행사는 전야제(개막 축하공연), 개장식(나주시 어린이날 큰 장치 연계 프로그램), 폐장식(새로운 삶을 위한 친환경디자인 선언) 등이 열린다. 문화행사는 주제공연, 체험행사, 실내공연, 거리행사가 펼쳐지고, 사전·현장 학술회의도 이어진다.

전남도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와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이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과 디자인 관련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이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후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고석만 총감독은 "디자인을 통한 친환경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삶의 크기와 넓이를 변화하는데 박람회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전시관 개념도.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기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빙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보안번호 및 등급 ES 300h(에이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변속기), 복합연비: 16.4km/ℓ(도심상행: 16.3km/ℓ, 고속도도: 16.7km/ℓ), 복합CO₂배출량: 133g/km, 등급 1등급 (이연비는 표준연비에 대한 연비로서 도심에서 도심까지 주행하며, 정지상태 및 저속주행시에는 실제연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